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夕刊壹個月金壹圓貳拾錢 壹個月先金壹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廿錢 同欄內貳圓四拾錢 九字壹行貳圓七拾錢 特別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金維

發行所 京城堅志洞三二 朝鮮日報社

社說

米國의赤露承認問題

一

世界列強은 모도다勞農露西亞를承認하엿스나 北米合衆國만 오날까지獨也靑靑의孤節을직히고잇는感이잇다 그만큼米國의資本主義의城壁은튼튼하다 그럼으로 結局은世界가米化하여가겟느냐 露化하여가겟느냐하는것이 將來의問題일것이라 米國은 世界大戰에參加하기는하엿섯지마는 戰爭의舞臺로부터隔遠한地點에잇서서 損害를바듬이最少하엿고 도로혀經濟上으로 그國民經濟의基礎를完固히함을어덧다 그럼으로現今米國에서는 가장强硬한資本主義를가지고잇다

二

前國務卿『휴쓰』氏는 感情上으로 勞農露西亞를厭忌하는사람이엿섯다 그럼으로同氏在職中에는 勞農政府側에서는 米國側의承認問題에對하야 그다지眞心으로생각하지아니하엿섯다 그리하엿스나 『휴쓰』氏가물러가고 『케록』氏가國務卿의印綬를쥐우게됨에當하여는 勞農露西亞外交委員長『치체린』氏는 米國의態度에對하야 樂觀說을主張하엿섯다 그結果인지아닌지 알수업거니와 十月二十一日에 前『인데이아나』州知事『구스드리지』氏는 露西亞를視察하고돌아와서 大統領『쿨리지』氏를訪問하고 露西亞承認問題의再考를促하고 이어서氏는 新聞記者에게向하야 『露西亞는 經濟的으로急速히進步하여가는中이라』고말하엿다

三

勞農露西亞가 世界列國의承認을어드려고 따러서 또米國의承認을어드려고 焦慮하는것은 第一次的으로는 體面에向한問題이고 第二次的으로는經濟的範圍에關한問題이엿섯다그러나 露西亞는即今은經濟的으로는 매우恢復되여왓다 經濟的으로恢復되여간다하는것은前記『구스드리지』氏의言明에依하여도알수잇거니와 國際共產黨執行委員長『지노비에브』氏는쏘베토聯合이 昨年에英國勞働黨內閣과 二億乃至三億金留의借款을成立식히려고 苦心折衷하다가 畢竟失敗한經驗을回顧하면서 今年즉一千九百二十五年에와서는『收穫』이라는농부에게서莫大한借款을밧게되엿다고말하엿다 그리하야氏는쏘베토國家가 工業에對한投資中으로부터來會計年度에는 九億七千萬金留를收入하게될터인데그中의 三億金留는 新規事業에支出할수가잇다는것을말하엿다

四

또獨逸의『데』銀行團으로부터 勞農露西亞는 一億金馬克의借款을바더잇다는外報가잇섯다 이와가하야 露西亞는그自力으로써 經濟界를恢復식히는境地에到着하엿고 또借款을英國이나米國과가티有力한나라에서엇지못하고 도로혀獨逸과가티아조窮乏한境遇에잇던나라에서도 借款을엇게되엿다는것은一見奇異한感이업지못하다 그러나 그것은獨逸과露西亞가隣接한關係上 經濟關係가매우密接하다는것을말하는것이다 즉이러한事情을綜合하여보면 露西亞는 米國側에서는 資金의融通을밧기爲하야서 米國에게特殊條件으로써 그承認을要求할必要는업게되엿다 그뿐아니라 最近東洋政局의發展은 사람으로하야금 도로혀露國의外交가得意의秋를當하엿다는것을 생각케하는바잇다 이때에 米國上院에서는 露西亞承認決議案이 外交委員長『보라』氏에依하야 提出되엿다하는것을 十日의東亞電은 來報하엿다

五

米國上院外交委員長『보라』氏는 勞農露西亞承認論者의先鋒인것은 內外周知의事實이다 前國務卿『휴쓰』氏가 退職한것도 『보라』氏가 外交委員長에就任한結果 自己의外交政策에關하야 多大한制肘를밧게될것을 不快히생각함에基因함이不少하다고하엿다 그러나個人的態度보다 國際形勢의變化가 더욱重大한關係를가지게될것은勿論이다 只今에와서는 米國이도로혀受動的地位에서게되엿다 米國側으로보면 露西亞가東洋問題에對하야 多少間讓步하는또는中立하는態度를取한다면或比較的容易히 露西亞를承認하게될라는지도알수업다 그러나米國의恒常中外에 聲明한條件中 (一)『케렌스키ー』時代의負債承認 (二)在露米國民의私有財產沒收에對한賠償保證 (三)米國內에잇서서 過激宣傳을行하지아니할保證 이三條는 果然그대로勞農露西亞의承認을어들수잇슬라는지? 만일米國이 露西亞를承認한다면 英國이나佛國이實行한것과가티 何等의條件을부치지아니하고 먼저그것을承認하여야될것이다 그러치아니하고 처음부터條件을確定하려고하면 반다시 또失敗하고말것이다 何如間世界에잇서서最後의雌雄을決定할이두나라가 接近하여오려고하는것은 우리의注意를要할바이다

國軍의肉迫戰 依然勝勢持續
二十臺軍用列車楊村着

(東京電) 天津十二日發某處着電=十一日夕刻外지國民軍第一軍은廣昌興廠楊村濟南等에進出하야李景林軍에接近하엿스며砲戰은依然猛烈로機關銃戰小銃戰도處處에有하고十日부터十一日夕外지楊村에着한國民軍軍用列車는二十에達하엿더라

國軍二個旅全滅說

=(東京電) 天津十二日發某處着=馬廠附近의戰鬪는可成的大規模인데國民軍二個旅는此戰鬪로因하야全滅하고李景林軍은小銃約三千을鹵獲하엿더라

吳俊陞、四旅團을 引率하고來奉할터

(奉天電) 吳俊陞은黑龍에서四旅餘의兵을引率하고十二、三、四의三日間에亘하야來奉의旨를通電하엿스며又吳俊陞은軍의到着前十二日來奉할豫定이라더라

張作相向奉天

(長春十二日發) 其行動에多大한注目을惹起한吉林督辦張作相氏는十二日午後二時十分長春에來到하야三時十分發奉天으로向하야出發하엿다더라

兵士選拔을嚴命 各縣으로부터

(奉天十二日發) 王永江은本日各縣知事道尹에對하야左의條件으로地方巡警中에서兵員을選拔하기를命하엿다더라 一等縣에서二百名二等縣에서百五十名三等縣에서百名

馮李의決戰은 十二日中으로
注目할戰局의分水嶺

(奉天十二日發) 李景林軍과馮玉祥軍의最히接近한地點은北滄인데十一日夜兩軍의距離는小銃의着彈距離가되야十二日朝부터大決戰을行할模樣인바北滄天津間은約一里半이나李景林은엇더케하던지天津을死守하라고兵을激勵하고잇다 一方馮軍은唐山을占領하엿다고云하나此는李에對한것이아니오郭松齡을援護한것이라고觀測한다奉天軍의士氣는第一李景林의勝敗如何에달리엿슴으로써奉天側은非常히注目하고잇더라

李軍、決戰을劃策
河南軍擊破를機會로

(東京電) 李景林軍은馬廠에在한十日來의戰鬪에서河南軍을大勝하고同軍을潰亂식혓슴으로 馬廠에는오즉守備隊一箇師를남기고大部隊는奉天에歸하야馮軍과一大決戰을試하리라고策戰을講究하엿스며李軍의兵은四萬이라더라

黑軍奉天에出動
一部는四平街에到着

(奉天十二日發) 曩者黑龍의兵二個旅를奉天에서戰線에送할터이라하더니該軍은十二、三、四의三日中은當地에到着하게되리라는데一部는昨夜四平街에着하엿다더라

奉機敵情偵察

(奉天十二日發) 郭松齡軍의進出에依하야奉天軍飛行隊는十二日當地를發하야敵情偵察의目的으로五六艘가出發할터인데現在戰時用으로所用되는것은十幾艘이라더라

齋藤少將出發
十二日午前에

(東京電) 張郭兩軍의抗爭後決戰이目前에逼迫하엿슴으로滿洲에居留하는日本人은不安한中에在할터임으로其保護의責任을진新任關東軍參謀長齋藤恒少將은十二日午前八時四十五分東京驛發特急으로職亂地인奉天을向하야出發하얏는데陸軍諸星五十餘名과外務省其他關係大官多數가見送하엿더라

理直한質問에 議長의答辯窮塞
忠北道評議員會第三日
梧倉面桃岩堤堰問題

忠淸北道淸州郡梧倉面桃岩堤堰이라는것은大正七年度郡과面의經營으로殖產銀行에서七萬圓의債金을어더가지고始役하는同時水利組合으로許可를맛기爲하야强制로人民에게圖章을바더가지고總督府의許可를圖得코자하엿스나人民의激烈한反對와總督府의不許可가되엿슴뿐아니라該堤堰의潰決로因하야被害되는面積은不過十餘町步임에不拘하고該附近에廣漠한土地三百餘町步를該堤堰區域에編入코자함으로關係人民은即時訴訟을提起하야勝訴外지하얏스며實地蒙利區域에잇는地主는該土地를課稅價額六七割以內로日本人有田某에게沒數賣却하엿슴으로現今에至하야는六七年前의債務七萬餘圓을償還할道理가杳然한中雪上加霜으로今年夏期漲水로因하야該堤堰數百間에潰決되엿슴으로그것을다시修築하야가지고水利組合으로許可를다시圖得하여야最初道郡當局의目的을期成할뿐아니라債務七萬餘圓도報償케되얏슴으로大正十五年度地方費中에서 堤堰修築補助費로一萬一千五百圓과土地改良費로三千圓을明年度預算案에編入하엿는데이에對하야忠北道評議會第三日인本月八日에

▲第九番議員閔泳殷氏로부터該堤堰의經營이本業부터相當치아니한것을莫大한債務를지가면서人民의怨恨만엇게될뿐아니라人民으로하여금自己의所有土地를課稅價額六七割以內로放賣치아니치못하게되여서現今은該堤堰이不過一二個人에所有와가티된것인데何로因하야莫大한地方費를支配하는가하야質問을始하매

▲第十七番議員厖寅赫氏로부터地方費라는것은人民汗血의結晶일뿐아니라忠北과가티貧弱한地方費를가지고不過一個人에蒙利인事業을爲하야一萬四千圓式支出함은너무나無理한일이아니냐는等의質問이잇섯고

▲第五番議員洪明熹氏로부터該堤堰을水利組合으로議事를得코저하나實地는灌漑로蒙利함이아니요水害를防備코자함인즉所謂名稱이水利組合이냐防水組合이냐하는質問이잇슴으로

議長은防水組合이라하면조흘뜻하다고糢糊한答辯을하매그러면水利인지防水인지名稱도分明치못한事業에貧弱한地方費를浪費하는가하고質問이잇슬뿐아니라各議員으로부터是耶非耶하는質問과紛紜한公論으로因하야議場은一時空氣가緊張하게되매

議長代理內務部長으로부터該堤堰破壞로因하야淸州、館川間三等道路의被害가莫大함으로不得不補助를아니치못하겟다는窘塞한答辯이잇슴으로

▲第九番議員閔泳殷氏가그러면該堤堰越便에잇는外南里區域의道路는다가튼 淸州館川間 三等道路로서數三處가 潰決되여서

知禮衡平分社 創立總會盛況

慶北金泉郡知禮衡平分社創立總會를開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지난九日正午부터四方에서雲集하는社員은無慮三百餘名에達하야集會場에立錐의餘地가업섯스며同午後三時부터는示威隊를編成하야金泉우리樂會의樂隊를先頭로하야知禮市場을一週行列하얏스며衡平萬歲를高唱한後네時頃에金點述氏開會로鄭基杓氏의式辭를이어洪甫容氏의祝電祝文朗讀과許弘濟氏의沿革報告와來賓黃泰成李鍾泰周南泰洪甫容四氏의祝辭가잇섯스며이어서社員의悲憤한所感과其他順序에따러警官의嚴重한警戒裡에서議事를進行하고同六時에奏樂으로閉會한後晋樂及素人劇의자미시러운餘興이잇섯다는데被選된任員이左와如하다더라(金泉)

◇任員

分社長金点述 總務金今石 財務金八奉 會計李在根 書記林蓮用 評議長林馬場 評議員朴夫介外五人

平安北道 道評議會
=第三日=

第六回平北道評議會는지난十日午前十時부터繼續開會하야알에와가티質問과意見이잇섯다

▲公廨柱(碧潼)議員의土木費豫算에對한質問이잇섯고中川番外로부터이에對한答辯이잇섯다

▲崔景禎(宣川)土木費豫算은二十九萬圓에不過한則이것으로도各地方마다充分히할수는到底히업는터인則이에對한質問과意見을굿치고採決하자는動議가잇섯스나成立되지못하고그냥質問으로進行되엿다

▲金昌彦(熙川)의孟中里熙川線修路補助에對한質問과金炳宣(江界)의江界、平南線에對한質問이잇섯다

▲金熙緯(宣川)歲入으로昨年보다三十四萬九千圓이增加되엿스나歲出로보면人件費가多額에達하엿스며其次는道路改修費뿐이고人民에게直接關係잇는生活上必要한產業、勸業費敎育費에는適當히豫算이못된것은遺憾이라고하얏다(十二時停會) 午後一時부터繼續開會되얏다

▲張龍官(龜城)龜朔線及其他線路修繕에對한意見陳述(略)

▲黃翻洲(龍川)道路修繕은時期勿失과經費節約이第一인바今後의方針을一般하야路關係面

에修築費를分配하야 修築케할것이고國庫方面에잇서서가장重要한關係江治水事業은積極的으로할必要가잇소

▲張間內務部長은이에對한參考로서今後某條를道路修繕은迅速히治水事業도國費補助로서豫算에編入케하겟소

▲全元用(泗原)二千餘人民의死活問題인泗原堤防工事는完全한것은어려우나爲先應急工事를要望하오

▲中川番外 豫算이밋지못하오

▲李仁燮(雲山)前回에建議한孟熙線은停止하고寧熙線을着手함은可僞치못하겟지만寧邊桂郡守가道當局에親切한運動이라고가지하니엇더할가요

▲權璣鎬(寧邊)桂郡守의運動事件에關한說은寧邊人民을無視함이니그런말은그만두시오

▲崔景禎(宣川)温井、熙川間線과安滿道路를二等道路에編入하야速成하는거시必要하오

▲張間番外의答辯

▲金東濬(厚昌)修路工夫等이自己實任을人民에게밀우어人民이不得已修路를하엿는데工夫는人民의旣修한修繕處가適當치못하다고西五次改修를命함으로人民等은金錢을모하修路工夫에게請負를시킨事實도잇슴으로今後로는該關係面에一任하는거시當然한줄로認하오

▲張間番外 修路工夫의勤務上不穩當한것은嚴重히監督하겟스며監督權을郡又는面에委任하기를要望한것은考慮하겟소

▲和氣義矩(慈城)土木費問題는一般이重要하게녀기니까半日間을더延長하야주기를希望하오

▲李和鎭(義城)義宣郡에補助費는比例上平均치못한줄로認하오

▲中川番外 里數에依하야豫算한것이아니오

▲金濟洞(定州) 國庫補助增加를要望하오

▲谷議長 補助와直營두事業에可及的增加케하겟소

全州富豪朴基順
四團體看板撤去
四十名夜學生은道路에彷徨
各團體方今全靑臨總召集

去九日午前全北全州靑年會館에걸려잇던全州靑年會、女子靑年會、全北靑年聯盟、配達夫組合等의看板과現在靑年會經營인夜學校의黑板椅子等이撤去되얏슴으로그事故를會館守護人에게무르즉市內朴基順氏가同會館을修理하야癩風會와令市事務所로使用코저그看板과椅子等을會館守護人에게保管식인것이라하얏다(그진은癩風會의來歷을聞한즉本來會館은癩風會의所有임으로靑年會에서는癩風會로부터幾個月間비러서使用한것이라한다)이消息을드른

靑年會에서는緊急委員會를열고長時間의討議가잇슨後宋寧燮宋柱祥金均三氏를代表로選定하야朴基順氏에게質問하기로하고翌日(十日)前記三氏가朴基順氏에게무른즉看板을撤去한理由는該建物에對한借用期間이經過하고建物을毁傷할團體에게外지貸與한事이며또는今後로는癩風會의事務所로하겟스며開市가臨期된令市事務所로하겟다함으로靑年會側에서는令市期間에靑年會의看板만을거러두고同市가終了後에다시如前히쓰게하야달라고交涉하엿스나그것은許諾할수업고令市閉場後에相議하자함으로交涉은이에中止되고마럿다는데同夜學에서는智識을어드랴고熱心으로工夫하여오던四十餘名의無產兒童들이배우던場所를일허바리고

街路에彷徨하며靑年會에서는方今이事實을看板거럿던各團體에通知하고이에對한善後策을講究하기爲하야오는十三日에全靑臨時總會를召集한다더라(全州)

새로組織된 永川婦人商會
營利보다婦人運動目的 開店은十二月十五日頃

慶北永川에서는永川俱樂部女性部主催로婦人商會를組織하엿는데資金은三千円이라하며目的은營利보다婦女解放을爲함이라하며店舖活動도女性만이라하는데開店은來十五日頃이라더라(永川)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兩班階級에게告함

◇筆者는半千年間黑暗中에잠겨서만흔精神을盜賊當하며쓰라린가슴을두둥켜쥐고피눈물속에서自由를蹂躪당하야不公平한社會를겪거오는衡平社員다시말하자면白丁이다

◇嗚呼라엇더운錦繡江山에무엇으로因하야不合理한上下階級으로同一한人生을禽獸와가티待하며 다가튼兄弟를壓迫을주며世上에용납지못할만치自由를빼섯스니그것이우리朝鮮으로하야금잘하야온것인가 나는兩班이니너는常놈이니하며區別을가지고 외 우리朝鮮에힘을못하고 여서이만한 處地에서머리를알는가

◇다시말하면兩班이라하는사람의心志는엇더한가?참우쥽기도하고가삼이답답하다道路上에서黑衣人을보면매에게꿩다라나듯어데보다라나는貌樣을참으로허수아비에지내지못한다其形狀을보는나는우리白衣人種을두고不祥하다고생각한다참으로무엇이라고말할수업다

◇그러한人格을가진者가무슨區別을직히는가또는五大洋六大洲를본다하여도水平線上에잇는나라는興하고不公平한나라는멸亡한것이事實이아닌가단순히말하자면惡習을가진자는同一한우리民族을 잡아먹는細菌이다쓰지못할兩班이니무엇이니가진더러운心志를하로밧비流水에던저바리고人類의源泉되는道德을직히여라또한職業이아니고무엇인가도自由의商業이아니고무엇인가

白丁인筆者는衡平社員四十萬만잘살자는것이아니라二千萬兄弟가三千里江山에다가티아름다운生活을하자는것이다

◇보라衡平運動이世上에이러난後에온世界의耳目을놀내게하던慶南金海事件과慶北醴泉事件가튼것을보면우리가우리를自滅하는것이안인가事件의主謀者가警官의손에取調를바드며或은鐵窓生活을하는그것을보는나는만히울어왓다

◇우리朝鮮社會가엇지이러한處地下에서平和로운生活을못하는가兩班이여!如何한心志로서남의自由를奪取하고저하는階級爭鬪가안인가하고自由를주지아니하겟다는가兩班階級이여!우리朝鮮을한번도라보며衡平을부르지지는四十萬兄弟를깁히도라볼지어다(河陽어린白丁)

慶尙北道 道評議會
=第三日=

十一日午後一時十四分에繼續開會하고아래와가튼質問意見等이잇섯다더라

▲伊藤君(大邱)十二日은皇孫殿下의命名式日임으로前日에決定한十二日委員會는休會하자는動議가잇서서이에一致可決되고

▲池田君(聞慶)畜產監督者增置에對한質問과이에對한大西內務部長의答辯이잇섯다

▲元田君(安東)各中等學校에서는入學受驗料를밧게하고何必師範學校와農業學校에限하야는受驗料를밧지안소?

大西內務部長 師範學校는敎員을養成하는곳임으로人材를廣求하기爲함이요農業學校는大槪農家子弟의入學數가만흐며또한中產以下의農家子弟임으로多少間經濟上便宜를도읍기爲한外닭이요

▲秦喜葵君(達城)產婆配置郡을說明要求함에對하야井上衛生課長의答辯이잇섯고

▲伊藤君(大邱)今年에新設되는女子高等普通學校의敷地費가明年度豫算에計上되지안홈은何故이며高女普校의寄附金五萬圓과江口鎭港實寄附金一萬圓을民間에配當한다함은너무나重하지안소이에對한大西內務部長의答辯이잇섯다

▲姜國元君(榮州)年年行事로하는朝鮮靑年日本觀察團은果然그엇더한效果가잇소 此에對하야大西內務部長으로부터그럴듯한몃마되答辯이잇섯고同三時에休會를宣하얏다가午後三時十分에繼續開會하고

▲文明琦君(金泉)地方各部에共同沐浴場을速히設置하여달나는말에該當議員은第一讀會에서말할問題는안이니라고注意를바닷스며

▲趙南鎬君(安東)鐵路築設에對한質問과이에對한谷土木課長의答辯이잇섯고

▲伊藤君(大邱)今日의質問은大槪로終了된듯하니委員會를組織하자는動議가잇스매

▲澤田議長은一同에게贊成을得하야即時에서委員會를組織하고一二部로分하야十四日午前十時부터開催하기로하고午後四時에閉會를宣하얏다더라(大邱)

朝鮮人과 協同處理立案
東鮮會學校에對한 理事會規則新草案

南長老會宣敎師會의經營인全羅南北道內各學校는年來宣敎師單獨으로하야오던바最近에至하야朝鮮人의子女를敎育함에는朝鮮人과協同함이必要하다認定하고去十日全南北道宣敎師側에서六人과各老會에서六人이全州에會集하야理事會規則을起草하얏는바該案이美順會와老會에通過되는대로來年新學期부터實行하리라하며草案의大旨는各老會에서四人과宣敎師四人의理事로朝鮮人四人과宣敎師四人의理事를選擧하야道內各美順學校의諸般事를統括하게하기로함이라더라(全州)

●錦山에復興查經會 全北錦山郡錦城面道谷里에在한耶蘇敎會에서는去九日부터來十五日까지一週日間米國宣敎師馬路德氏를請聘하야復興查經會를開催한다더라(錦山)

高敞高普에 愼氏寄附完納

全北高敞高等普通學校에서는昨年의旱災로因하야寄附金徵收事務가停止되얏든事實은一般이아는바어니와同校에서는그동안財團部事務의未整理로因하야千辛萬苦를다격그면서도或은理事諸氏의盡力犧牲한結果이제는新築校舍도거의落成이되고對內對外의諸般事務도점점整理가되엿슴으로道當局부터未納된寄附金徵收에着手하엿는데멀리獨逸에서留學하는라고아즉外지寄附金을納附치못하엿던興德面沙川里愼鏞縉氏도今番에同氏의負擔額六千三百圓을내엿다는데高敞人士로서全部不納한人士나또는已往納附校寄附金에對한義務는今日外지도履行하지안코는되지못할高敞人士들은今年末外지는期於히履行을해주어야朝鮮兒童의敎育에使命을뒤인高敞高普의前途에支障이업겟다더라(高敞)

高原小作組合
組合長制를委員制로

高原小作組合에서는內部革新과其他諸般事業을充實키爲하야臨時總會를去八日天道敎宗理院內에서開催하고臨時議長徐炳洲氏司會로議事를進行한바現在組合에대로는組合自體는勿論이고組合員에게도何等裨益되는바가無하겟는則外他討議事項보다도組合維持方針을討議하자하야一時會場이紊亂하얏고組合長制를委員制度로改革하며組合을理解치못하는組合員을一一히訪問하기爲하야特派委員을派遣한後諸般事項을剛謝로討議한後閉會하얏는데決議事項과執行委員은如左하다더라

◇決議

一、組合員團束에對한件

一、小作料不正斗量에對한件

一、特別總會開催의件

◇執行委員

朴鳳彬 趙衡喆 朴鎣淳 鄭在淳 朴文極 金敎泓 崔利徹 申永祚 趙暢熙 金泰卿 姜興洛 李東協 孟泰裕 趙炳淑 李敏敎 張源弼 金澤憲 黃鏵 朴箕宣 黃昌翰 朴東協 金仁淑 徐炳河 趙基彥 宋東憲(高原)

다는데同民의期待와興情委員諸氏의熱誠으로所望에副하리라고一般은樂觀한다더라(錦山)

慶州長老會 乞人救濟計劃

慶北慶州邑路東里長老敎會에서는去七日某某幹部靑年會를組織하고敎會內外로一般社會에對한諸般事業을誠實히施行하는中同會에서는特히來二十五日크리스마쓰에난一般乞人에게救濟事業을하기로旣히作定하고多方面으로活動中이라는바一般이共鳴하야주기를바란다하며衆選된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任員

會長崔炳翰 書記李敬道 會計崔喬昌 探査部長朴文泓 部員姜萬壽 金仙喜 文義分 獻身部長許攸 部員金萬得 金貞喜 徐德順 通常部長金喆 部員李敬化 金在恩 河必順(慶州)

晋州女靑運動 組織化하는

慶南晋州에서는女子靑年會가創立되엿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同會에서는去十日午後八時同郡晋州面平安洞에잇는私立一新女高普校에서同會執行委員會를開하고來十三日臨時總會를開하야同會創立祝賀式을擧行하기로決定하고運動을組織的으로하기爲하야左記事項을決議한後同十時閉會하얏다는데前記祝賀式에는『바이오링』女性의獨唱과有志의祝賀演說도만히잇스리라더라(晋州)

◇決議

一、每月第一日曜日에總會員月例會를開할일

一、每月第三日曜日에討論會談話會를開할일

一、十一日부터同會基本金에對한有志의贊助金을蒐集할일

一、同會事務所는晋州靑年會館에置할일

極北에創立된 農興靑年同盟

咸北慶興郡蘆西面雄基面有利洞有志靑年들이암서만히靑年會創立에關한討議가잇섯스나環境의事情에依하야成立치못하고잇다가去月二十九日午後七時本洞里會文學校內에서大盛況으로創立總會가開催되엿는데宣言은他日에發表하기로하고綱領과規則을通過된後委員을選擧하엿는데綱領과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雄基)

◇綱領

一、우리는靑年農民으로團結하자

一、우리는相互扶助를原則으로하자

一、우리는農村의文化를促進하자

一、우리는生產階級의自治를促成하자

◇委員氏名

執行委員長吳昌學 財務部委員李敏華吳斗俊 經濟部委員全成益崔明錫吳昌植 學藝部委員崔永鎬吳麟邦全宗烈 體育部委員全光昌吳寶邦吳昌燮 實業部委員吳進邦崔鎬興 崔鼎國

教育에熱心하는 張炳勳氏

金海郡海洲面內三里居住하는張炳勳氏는大正十年頃同里內三勞働夜學會를設立하고全般費用을氏가大正十二年外지擔當하야왓스나마참經濟上關係로半年間은一時停學狀態에잇던바該里某某諸氏를訪問하야同校維持方針을確立케한後至今外지氏가直接敎授하는데四五星霜을一日가티缺勤도업시現在男女學生幷六十名을敎養함으로그徹底한誠心誠意를學父兄諸氏는勿論이오面民一同의稱頌이藉藉하다더라(金海)

羅、金、李三氏熱誠

全南羅州勞農共榮會主催인羅州勞働學院은漸次隆盛하여가는데教授部員의不足으로大端히困難하든中羅州金李諸氏는이러한事情을不拘하고熱誠的으로敎授하야主催側은勿論이요一般靑年들은感謝하기마지아니한다더라(羅州)

淮陽少年臨總

江原淮陽邑內少年會에서는去六日臨時總會를淮陽公會堂에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會員參加의件 規約會員表彰의件 設進及敎試합會員의件 會員整理의件 早起會에關한件 寄附金에關한件 音樂部長及運動部長選擧의件 各役員에對하야徹底히事務를執行케하되事情에依하야役員을改選할事(淮陽)

熊村靑年創立

慶南蔚山郡熊村面에는아즉靑年團體가업서서一般靑年들은遺憾으로녀겨오든니朴容完 吳良根 李昌洛 李圭顯等有志靑年이發起하야熊村靑年會創立準備에奔忙하든바四十五人의同志를어더去六日午前十一時부터熊村公立普通學校에서三十七人의出席으로創立總會를開하고經過報告綱領發表規則通過任員選定決議事項等을마치고來賓으로蔚山靑年會代表朴正業氏의祝辭가잇슨後午後三時에閉會하엿는데綱領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蔚山)

◇綱領

一、우리는會員間의親善을圖하며靑年運動의大同團結을期함

二、우리는靑年의敎育을힘쓰며農村의新文化를促進할일

三、우리는相互扶助의原理에서公共的精神을發揮하야大衆의利益을增進할일

◇決議

一、蔚山靑年聯盟에加盟할일

二、未備事項은理事會에一任할일

◇任員

會長朴容完 副會長吳良根 理事金守五外八人 顧問李在洛 金瑀性 趙性敏 都寅相

●金昊子女史追悼式 咸北鏡城公立普校訓導金昊子氏는去十月부터病으로呻吟하던바去十一月二十一日下午五時十七分에逝去하야不得已한事情으로葬式을略하엿던바一般은매우遺憾되야去月二十八日同校講堂에서追悼式을擧行하엿다고(會寧)

稅金括納잘한 雲岩面長受賞

全北任實郡雲岩面長李圭庠氏는每年稅金徵收의成績이良好하든바今年에例年보다時期에良好하얏기로表彰하기爲하야昨十日任實郡廳會議室에서郡守以下官民一同이列席하고李郡守開會下에賞狀과賞品(掛鐘一介)을給與하고小宴이有한後閉會하엿다더라(任實)

浦項勞夜에義捐

當地迎日靑年會에서經營하는勞働夜學은設立된以來生徒一百五十名을收容하야漸漸늘어가는經費의얼마를充當코자委員一同이地方有志를訪問케되엇는데有志諸氏의特히뜻기픈同情이잇서各自盡力하야捐助가多하얏다더라(浦項)

永川勞働夜學

永川郡知谷面梧山洞에서는安鴻洛安秉哲兩氏의周旋으로草家一棟을비러勞働者四十名을一二部로分하야敎授한다는데學生에게는一分의月謝費擔이업고다만文第新木一東式을支出할터이라더라(永川)

西津江上流의 交通不便과 住民의希望

江原道淮陽邑西邊에在한西津江은北漢江上流로京元一等道路線中第二되는大江인바既往架設되얏던大和橋는大正十二年二月頃解氷增水時漂流되야于今三年間을片木假橋도업시一葉木船으로僅僅히交通을聯絡하는中인데初氷及解氷期에는乘船과登氷이共히不及하야人馬車類의交通이危險하며特히幼年學生의通學이危殆하야或境遇에는停學外지되는데附近一般은當局에서春秋兩季에는假橋라도假設하기를希望한다더라(淮陽)

崔觀玉氏施惠碑

全北錦山郡秋富面新甲里崔觀玉(五[illegible])氏는얼마즉이慈善家로一般의稱頌이不絕하던바今年凶荒에도栗二十三俵를錦銀面內貧民에게分給하엿다는데同面有志吳某外諸氏의發起로去月一日에里新長路邊에氏의施惠碑를세웟다더라(錦山)

吳面長紀念碑

全北錦山郡秋富面要光里吳泰根(四四)氏는九個年間當面長의職에在하야多方面으로事業에努力한結果로他面에遜色이無할만치發展되엿슴으로面民一同은氏의功勞를永遠토록紀念키爲하야同面馬田里에氏의事業紀念碑를樹하엿다는데氏는今年九月頃에職을辭하엿다더라(錦山)

保寧靑陽間 輕便計劃
官民有志들이 靑陽舘에會議

總工費는三十萬圓으로

忠南靑陽郡에서는去九日當地靑陽舘에서竹井靑陽郡守와保寧有力家竹井氏外官民有志들이모히여保寧靑陽間에輕便鐵道를敷設코저協議가잇섯다는데保靑間延長距離는六哩오豫算總額은三十萬圓인데其中十五萬圓은京南鐵道株式會社에서出資하고七萬五千圓은殖產銀行으로부터借入할計劃이오四萬三千圓은保寧郡에서負擔하고三萬一千圓은靑陽郡에서負擔하야保靑間輕鐵이完全成立하는討議가잇섯다더라(靑陽)

濟原公普 學年延長有望

濟原公立普通學校學年延長에對하야敎育後援會主催로面民大會를開催한結果郡道當局에陳情하기로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七日에陳情委員李海元、鄭寅澤、金顯俠、淺野貞次郞四氏가直接道當局과妥協한結果圓滿한諒解를得하야去十日歸還即時로또郡當局의圓滿한諒解外지엇엇

寸鐵

【永興】 모두히네中毒者를撲滅하고자里民大會外지開催코자準備中이라고한다果然徹底한成績을나타내기바란다

◇

【秋風嶺】 世道面民은當地에賭博이盛行하는데警察은觀若等閑한다고非難이잇다 賭博軍의秘密이엇지巧妙한게지?

◇

【錦川】 文白面駐在所警官은賭博軍을捕縛하다가格鬪되어重傷을當하얏다한다가엽서라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Dec. 13th. 1925.

To the Editor

Sir: I am glad to hear that your paper has been allowed to resume its publication. I never had clear information why it was suspended, I surmise that the tone of your paper was not pleasing to the powers that be.

Those of us who live in a country where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exists cannot understand the reason for subjecting newspapers to censorship and suspension even their tone is not agreeable to the authority. Of course, if any publication prints immoral or untruthful stories it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law, but it ought not to be suspended. However, if that is the law in Korea, you will have to bear it.

There is a silver lining in the clouds of the present situation. These punishments will naturally create public sympathy for your paper and in the end you will have more readers, and your editorials will command more serious consideration.

Of course, a daily newspaper has to give its reading public the news of the day, both domestic and foreign, but its editorial columns can be devoted to a certain phase of important subject that is of vital interest to the people. I believe no Korean paper can go into political matters very much at the present time, but it can freely discuss such subjects as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commerce, agriculture, manufacture, shipping, railroads, electrical, communication, art, music, athletics, banking, literature, oratory, poetry, philosophy, history of other nations, Korean culture, antiquity, civilization, modern customs and manners of Europe and America, etc. All of these are of great interest and importance to the enlightenment of the people. I would like to see one of the newspapers in Korea give some space to these and kindred subjects in its daily issues. Knowledge is power and power is what the Korean people need.

Just a few lines to let you know that I am pleased with your resumption and anticipate the pleasure of receiving the copies you had been kindly sending me.

Yours very truly

Philip Jaisohn, Media, U. S. A.

英文欄

[illegible]

無主空家에서 破壞差押敢行

세민위하다고주택은주고 집세못낸다고무리히차압

羊頭狗肉的京城府의態度

종래경성부의 하는일이란 매개가 양두구육(羊頭狗肉化)하야세간의 비우숨과 비난만을자기에 데당하엿슴은 경성부를아는자로서 누구든지 이를집작하는터인바 그중에도 소위시내의세민(細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부영주택(府營住宅)을여러곳에 세우고 도로혀가진폐해와원망을 자어내는일이 적지안어온터인데

이제다시 시내봉래뎡사뎡목(蓬萊町四丁目)에잇는부영주택에서는 최근에 경성부의집세증수원이 차마못할 행악을함부로하고 장차다쳐오는 엄동에안타싸는놋솟을 부쳐잇는 가산즙물(家産什物)을 모조리 차압(差押)한 뜻기에 거짓말가튼사실이잇스니 지난 구일긘긔부영주택에사는 사람들은 긘부버리를나가고 쇠를채운집에 독긔를든 경성부원이 나타나어느곳으로부터인지 순사한명을 데려다가 문긘에세운후 쇠승지안코쇠채운문들을 바수고 집안으로드러가서솟(釜)기타의

가산즙물 을닥치는대로 차압한후 심지어 장거노흔쇄작까지 독긔로쌔트려가지고 그안에드러잇는 물건도 모조리쓰내어 무슨차압에나 익인개선장군가티 의긔양양히 도라갓는바그후해가진뒤에 종일버리에 섀진몸파 주림에부대기는배를 웅켜쥐고 도라온사민들은 이광경을보고 깜작놀라 그엽헤잇는사람들에게 그엇지된 리유를무러비로소 아럿스나 하줌숩쌀을쓰려먹을 그릇조차업서 그후지금까지는시량(柴糧)이잇서도조석을 못쓰리는 가련한 형편에잇다는데 권긔경성부원이 이와가타참혹한짓을한리유라는것은

매월삼원 식내는집세를 약팔구개월식내이지안엇다는것이라하나차압을당한사람들은대개그부영주택이설치되든대뎡십삼년십이월부터오늘날까지계속하야 드러잇든사람들로집세도여일히 잘내여오다가 금년에 드러스며 그나마 버리가업서내여오지못한것이엇스며 일변 집세를지금까지 여러달동안 내이지못하여왓섯서도 차압을 하겟다는소리는 한번도 말한적업시 집안이비인사이에 도적질 하여가듯이 차압을하고 심지어밥지어먹는솟까지 쓰러갓슴에 대하야그부근일대에는 원성이

창텬한중 이며이광경을당한 사람들은매일 눈물을흘리는 참상에잇다는데 차압을당한사람의씨명은아래와갓더라

蓬萊町四丁目府營住宅第二戶勞働日收入七十錢金敬鎬家口五名差押品京城府定價格三圓五十錢▲同四戶勞働日收入七十錢崔有錫家口五名▲同入戶勞働日收入八十錢李永福家口六名差押品京城府定價五圓▲同二十四戶勞働日收入八十錢金和家口四名差押品京城府定價五圓▲同二十五戶勞働日收入八十錢金東鎬家口六名差押品京城府定價八圓三十錢

呼訴無處외다

엇지사러갈니까 / 逢變住民談 / 산동에집까지빼앗기고

별항보도에대하야 차압을 당한사람중의 한사람은말하되「참말긔가막혀 말이안나옵니다 아무도업는사이에와서 연통도 업스그런법이 어데잇슴니까 미리알려나주엇드라면 도로혀 빼앗긴그물건이라도 우리가 돈을더밧고파러서 얼마간이라도 무러노코 이광경이나 면하엿섯슬것이올시다 장차엇지사러갈는지 생각이업슴은아니라 호소무처이올시다」 하며눈물을떠음더라

盛況을極한 女流大講演會

뎡각전부터장내는만원

외국부인의독창도이채

만흔흥미와 긔대를가지고 잇던경성녀자긔독교청년회(京城女子基督教青年會)주최와본사후원인 녀류대강연회(女流大講演會)는예뎡과가티십이일오후일곱시반부터 중앙긔독교 청년회관(中央基督教青年會館)안에서열리엿는데 뎡각전부터 남녀청중은 물리여들어 정각인일곱시경에는 입추의여디가 업시되엿슴으로 문밧게는 만은사람이례를지여잇는 현상이엇섯다 시간이되자 사회(司會)유각경(兪珏卿)녀사의 간단한 식사가 잇슨후「빼야노」부인의 청아한독창에 「해」부인의 반주가 잇서서 천여청중의 담담한흥금을열어준후 류영준(劉英俊)양이등단하야 유아양육의 주의건(幼兒養育의注意件)이라는문데로써 어린아이의 출생전부터출생후에관한 모든 주의건들을 어일반부모된이와 부모될이에게대하야 장시간강화가 잇섯더라(이하석간긔사참조)

新義州高普紛糾

學生「스파이」問題로

교장과학생사이에분규중

여러날을두고해결이안나

지난 삼십일부터 사흘동안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에서는 학생과학생사이에 큰 문데가일어나서 일대소동을 이르켯다는데이제그자세한사실을탐문한바에의하면 학생중 데오학년생신의주 로송뎡이번디(新義州老松町二番地)김린이(金麟伊)(三○)가데이학년이학긔부터토거(土居)교무주임의 부탁으로「스파이」노릇을한다고 일반학생이의심을해오다가 지난삼일밤에어떤하숙옥에서학년중 멋멋생도가 모혀서김린이를붓들려다가 사실의자백을밧고 주먹질을 하엿는데 김린이는 그당시에 매를맛고량심에 가책을바덧노라고 다시는그짜위짓을 아니하겟다 하면서 가지고 다니든 채뎜부(採點簿)그후 가보이는고로 삼십일오후 여섯시경에사학년갑을반생도

칠십여명 이그학교들에모히여 김린이를불러다가 권일과가티 또따려주며 사실을고백하라하매 몸에가지고 다니든채뎜부삼년간치와 생도 성적표와기타학교 용지등을 발견해내이엿슴으로 김린이는 할수업서서 데이학년가을부터 토거 선생에게「스파이」부탁을 바덧고 삼학년봄부터 금년칠월까지 매삭십원식의비밀

보수금을 바덧다 는서약서(誓約書)를 써주기까지 하엿슴으로급장(級長)이하 사명의 대표자가서 질문을하고자 할때에 어느가집인이와가티 토거교장 집에를가서 발서김린이는 교장을차저가서 밀약을하엿든지 또매를어더맛고서 그채뎜부와 성적용지등은 모다 도적하야내인것이라고변명하기를 교장과 가티밀약하엿다고대답하엿스며

그다음날 인지난초하로날 오전구시반에 토거교장파사학년 생도전부와 김린이까지삼각이 마조안저 이에대한사실을 캐고자하는데 김린이는 발서부터 사실대로 대답해오든 것을 졸디에부인해버림으로사학년생도전반은 공부하기를 그치고진정서(陳情書)를교장에게 데출하야 이문데를속히 해결해달라고하엿스며

그다음날 도등교(登校)는하엿다가 이문데를 좀더강구해보겟다하고 학급주임의 허가업시 모다나와버렷는데 부형측으로 모모오륙인이 타협문데를쓰내엿스나 아모런 해결이업섯스며 학교당국에서는 동맹휴학으로인뎡한다고하기째문에 결코 그런것은아니엿슴으로 그다음날인 지난삼일부터 등교는하엿스나 이에대한연구에 몰두한모양이라더라

各學年動搖

오학년은리협주의 / 삼학년도진정데출

신의주고등보통학교오학년생도부가 소동을이르켯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오학년도 김린이가「스파이」노릇을하엿다는사실로 그학교사학년생도 권삼십일밤십일시에 약죽뎡(若竹町)모소에회집하야 이사건으로 사학년이 소동을이르킴 그형세가자못맹렬함으로 우리도 이에대하야 단데행동으로 건국뎍으로 사학년의 태도를보아 가뎡하자는결의를하고 지난초하로날

오전팔시 반에학교로모히여 문데의초뎜인 김린이를불르고자 사오차나 그주소로차저갓스나 부모되는이가 문을잡그고 내여주지 아니함으로 그냥도라와서 오전만은 공부를계속하고 오후부터는 학급주임중립으로 해결코저한다 하엿는데 학교당국으로서는 김린이는 정신에이상이 생긴듯하니와 내여주지못하겟스며 더구나그부모에게서

마는것인 고로부모의승낙이업시는 도저히 내여주지못하겟다고 하다가 결국김린이가 선생들과 오학년사이에 나라나기는 햇스나 아모런뎐말을 말하지아니 함으로 선생으로부터 요구하는김린이에게 쪽 특별히 가하지안을것을 책임지고 선생들의도라가기를 청한후 김린이에게질문을한결과 권긔와 며동소이한말을하며 토거교장에게서 부탁을 바덧다고

하엿는데 그날저녁에두 사람을다시 대표로김린이에게보내여 구데뎍답변을 요구하엿스나 공부는못하고 학교당국에그 일에대하야 좀더연구해 보겟다고 시간을어더가지고 권긔대표 두사람의보고를 듯게 되엿는데 모다부인하는것으로 알게되엿다 그리고삼학년권반도 이문데를속히해결해달라는 진정서를 데출하엿다더라(신의주)

大邱에서逃亡한 一萬圓詐取漢

봉텬에서데포

대구봉산뎡(大邱鳳山町)오십구번디 김상훈(金相勳)은 작년이래로 동디남뎡(南町)임폐신환 더부호 뎡재학(鄭在學)외 명으로 뎡사원(鄭思源)(三○)을 위하야 권긔당재화의실인을 훔쳐내여서 대흥뎐긔회사(大興電氣會社)와 대구은행(大邱銀行)에서 천후수산회사에대하야 칠천원의 약속수형을발행하고 또다시 한성은행대구지뎜(漢城大邱支店)에 삼천원의수형을발행하고 중국만주방면으로다라나고말엇든바지난달이십칠일에대구경찰서의의뢰를바든 봉텬민정서(奉天民政署)에서그를데포하야대구서로호송하엿다더라

海州에名聲이놉든 文載敏孃의一生

일즉이기생의몸으로서 삼일운동에공헌이만타

눈물겨운생활로쏫을막어

해주인사(海州人士)치고는 남녀로누구를 물론하고 누구나문재민(文載敏)이라하면 아지못하사람이업스리만치 명성이 놉핫섯다 그러고그를말할때에는 반듯이 조선민디를뒤흔들든 파거삼일운동을회상하게되던다 그는일즉이해주군송림면수안리(海州郡松林面壽安里)엇던빈가의 녀아로생장하야 십사세까지 부모의슬하에 간신한살림을 하야오든바그곳에서는 별로 생계도업고 가세가더욱더욱빈곤하여집으로

당년에 그의부친되는 문성관(文聖寬)은어린딸을잇글고 번화한 해주시가로 들어오게되엿다 오기는왓스나 갑작이먹을것을구할길이 업게됨을따라그의부모는하는수업시자긔의어린딸을팔어집이라도한채작만하려고드디여 중뎡에사는안산이(安山伊)라는녀자에게 백원이란돈(김한채갑)을 밧고어린딸을

기생의 몸으로 팔게되엿다 세상이무엇인지 대문밧게도 나서지못하든그는 눈물을 흘리며 메향도하여보앗스나 긔한의 마수(魔手)에 쫏기여 하는수업시 문향희라는일홈을가지고 낫이면 뜻에맛지안는 풍류랑을대하고 밤이면 눈물과한숨으로화하야 류계생활을 삼년동안이나 계속하여오며 일상 현실에대한불만을늑기는한편으로는 부운과 가튼허욕(虛慾)의

생활을 버서나 무슨다른새로운길을차지려고긔회만엿보고잇든중마츰조선사람의피를뛰놉게하든삼일운동(三一運動)이 불길일듯일어날째에 그는 연약한주먹을부르쥐고 수만군중속에 뛰여들어「만세」소리를고창하며 수만군중가운데에 한색채를 더하엿다 그다음부터그는 뜻에맛지안는 화류계생활을 뒤로저버리고자긔와가든 운명에 매여잇는 동모수십명을 모하가지고 삼일운동에가담하야 생명을악기지안코 종은가슴이터질듯이열성을다하얏스나 그에게는또다시 검은손이 달려들게되엿다 연약한 몸으로서 혹독한 경찰의고문을바든뒤에또다시징역륙개월이라는선고를밧고 인간의지옥이라는 옥감옥생활을 하게되엿다 그가징역을다마치고

나와슬 때는벌서그해느진가을이되엿다 감옥생활을 버서나올때는 한갓깁분 마음뿐이엿스나 자긔집으로 도라와서또 다시「장구」를 억개에매고 못남자의 손에익굴날 생각을할때에 그는비로소 자긔의 커다가감옥생활에서 더낫것이업슴을 쌔닷고 메멘인사를 차저다니며 자긔의눈물만흔사정을하소연하엿다 그리하야해주에멧멧

뜻잇는 인사가모히여 그의 압길을 마련하엿다 그러든중에 해주남본정례배당(海州南本町禮拜堂)에 목사로잇는박재화(朴在和)씨가그의

압길을 개척하여주게되엿다 목사의부인도 삼일운동당시그와가티 텀창생활을 하엿슴으로목사의부인은그의참다운성격(性格)을알고더욱깁버하얏다 그후그는문향희라는일홈을던저버리고다시 문재민(文載敏)이라는 새일홈으로 오래동안동경하여오든 학창생활을 하게되엿다 그이듬해 즉시개성호수돈녀학교기예과(開城好壽敦女學校技藝科)에입학한후

밤낫을헤 아리지안코공부에만 열심을다하야 해마다 우등으로 졸업하야 동무들에게 부러움을 바덧스며 다시 고등과(高等科)에입학하야공부하며한편으로는방학새위가되면일을하야약간의학비를 어더가지고 자긔동생까지 다려다가

공부를 식히게되엿다 그는 또다시 그곳에서 경성리화학교(京城梨花學校)로 전학하야 압길의 만흔희망을품고 주야로공부에만 열심을다하든것이 그에게는 도리혀 불행의원인이 되엿다 그는점점몸이 쇠약해감도불구하고 여전히밤낫으로 책상머리를 써나지안타가 드듸여 무서운폐병에 걸리여 금년륙월경에고향으로 도라와 오래동안병석에서 신음하다가수일전에 그만이세상을 뒤로두고 이십사세의쏫다운나희로 눈물만흔일생을맛고말엇다――사진은문재민양(해주)

羅州土地回收를 直接東拓으로請求

궁삼면면민일동의련서로 청구서를방금작성하는중

전남라주군궁삼면(全南羅州郡宮三面)인민은동척회사(東拓會社)에피탈된토디를 회수하려고근삼십년동안을 싸와오든바 그운동은 더우심각화하야 일편으로소작료불납운동을행하고또는일본중앙정부에 탄원하기 위하야파송위원(派送委員)까지선거되야 동경을향하야 출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요사이에는 일층더조직화하야 이래십여년동안동척회사에서징수한소작료십삼만륙천석(十三萬六千石)그대금이백칠만륙천원(二百七萬六千圓)을 권소유자이라 궁삼면민에게로 환부하여 달라고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직졉청구하려고문서를 작성중이라더라

武裝團三名이 搜索班六名과交火

평북운산군동신면에서 무장단삼명이돌연출현

평북운산군 동신면마장동(平北雲山郡東新面馬場洞)에서 지난구일오전 한시경에 세명의무장단이나타나북진(北鎭)경찰서와운산주재소 이동(伊東)경부 이하여섯명의 수사반과 충돌되여교전하다가 무장단한명이 피살되고 동시에권총한자루와 탄환사십삼발을버리고갓다한다(신의주)

害보는米穀商

郭山草繩問題로

지난칠일 오후세시경에 곽산역전(郭山驛前)리현순(李亨淳)씨현미공장에서 미곡검사원이 출장하야 현미를검사하는중 이미검사를 마친초승으로 결복하얏는데 색기가불충분하야 검사당시백섬가튼 감을휘날리며 검사원의 뒤를따라 종사원은결복한 색기를 베여바리는데 삼백여포중쓰지못하는것이 백여포에 달한바 일포당오전의 손해인즉상업자 발보되오날에 공연한손실이이가틈으로 곽산군내 현미공장팔개소 주인측은 불평이만흘뿐아니라 한포에 리익이삼사전에불과한것으로 금권에 고통을당하면서 근근이사업을 진행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의외의손실을보게되여송검사당국이부주의함에 비난이 만흔터에 곽산진공장의 산미가 매일수천포가됨에 불리익의 영양이불소한즉 송이검사당국은 주의하야상민의 불평이업도록 하지아니한다고여론이만라터라(곽산)

一新女高紛糾內幕 徹底調查를決議

십이일에보고회를열고 대책을결뎡키로하엿다

진주일신녀고문데(晉州一新女高問題)로진주시민유지회(晉州市民有志會)를조직하고 동교분규와밋그들의 리면에 숨어잇는모든 내막을폭로키히 묘사하야동교의 장래발뎐에 지장이업게하는동시에 동교를배경삼고 분란을 일으키는 악분자를사회여론에부처

셩토하자 는목뎍으로시민유지회가 조직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 묘사원제씨가 묘사에착수하야 거의륜곽이드러낫스나 십일동교 평의회(評議會)를 감시하며 일층더책을 강구하고 조직뎍묘사를완성하기위하야 구일오후두시 청년회관에서 시민유지회 긴급총회를개최하고 림시의장 박진환(朴進煥)씨사회로 케반계획을세우고

평의회에 방청문데기타를 장시간토의가잇슨후 묘사에 유감이업도록하기위하야 조사원삼씨를 증천한후 십이일보고회(報告會)에서최후결뎡적태도를취하자고 결의한후 동다섯시반경에 산회하엿다는데 일반사회에서는매우주목한다더라 (진주)

市選委員 朴台弘 姜瀚永 李鍾天

沙蘭鎭에 九月青年會

청년수양긔관으로 북만주녕고탑(北滿洲寧古塔)관할구역인사란진(沙蘭鎭)이란곳에는 금년구월에 청년회를조직하고 일홈을구월청년회(九月青年會)라하고 위원케로하야청년의수양을 힘쓰는바 그직원은아래와갓다더라

黃東春 嚴聖律 黃武中 蔡殷獸 徐丙錫 韓鳳周 崔河鏞 朴宗漢 朴仁洙 李春山 張時千(길림특신)

延期만되는 黃海社公判

오는십칠일에

선만개척회사(鮮滿開拓會社)에서조직한 황해사(黃海社)와 수천명디주와 수만소작인의 대표인민병세(閔丙世)사이에손해배상십삼만원 청구소송사건은 이미여러번보도되엿바이어니와 지난십일이 공판긔일이엇스나 아직까지도 묘사기충분히 되지못하엿다고 피고측인 황해사에서또다시연긔신청을하야오는십칠일로 공판긔일을 연긔하얏다더라 (해주)

土地家屋으로본 朝鮮人南浦의破滅!

일인은매명다섯평집에살되 조선사람은모든곳은한평반

數字가表證하는彼我의生活

서관(西關)의 인후(咽喉)의 별호를듯는 요항(要港) 진남포(鎭南浦)가 정치(政治)권력(權力)을배경(背景)으로한 오천여외래(外來)의 나그네를마저주인(主人)으로 모시게됨을따하야 이만여 넷주인들의 생활디반(生活地盤)이 근저(根底)로부터여디업는 파멸을당하엿슴은벌서

십수년전 의오랜넷날부터이러난 문데어니와 이제진남포의 시가(市街)를 구성하온갓시설(施設)의 피상(皮相)으로만볼지라도밝고화려한일본인시가의눕고광장한건축물과컴컴한그늘뒤에서날마다여마다말업시파락(破落)되여가는 조선인 시가의 그것이얼마나 비통(悲痛)한현상(現狀)으로 넷날의 주인들이 현세(現世)생활선상(生活線上)에서

눈물겨운 도태를당하고잇슴을 가장침묵 (沈默)한중에서 웅변으로증명하고잇는바 이에달하야 진남포 시가디(市街地)안의토디와 가옥건물(家屋建物)을 소유한조선사람과일본사람의 소유비률 (所有比率)도비교표(比較表)를보면

십월일일 현재로묘사한 진남포시내면(田)답(畓)대(垈)잡종디(雜種地)를합한합계면적 구십오만일천륙백칠십일평그법뎡디가(法定地價)일백팔만구천팔백팔십이원에대한 조선사람과일본사람의 소유비률과 금년 오월일일 현재로묘사된 가옥건물통계표(統計表)로보아시내에잇는건물중 관유(官有)와 학술(學術)종교(宗教)자선(慈善)에관한일부의 건물을 데외(除外)하고순권히민유에속한건물

사천일백 이십팔동(棟)의 그건평 륙만이천륙백사평에 대한 다유의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의소유건물비교표 (所有建物比較表)를보면

	面積(坪)	地價(圓)	地番數
朝鮮人	一五四、六九五	七六、六五七	[illegible]
日本人	七七二、二〇六	九七七、五三九	[illegible]
外國人	二四、七七〇	三五、六八六	[illegible]
合計	九五一、六七一	一、〇八九、八八二	[illegible]

	棟數	建坪
朝鮮人	二、四三二	二四、九九九
日本人	一、六二〇	三五、五〇四
外國人	七六	二、一〇一
合計	四、一二八	六二、六〇四

시가디의 소유면적은 조선인소유가십오만

사천륙백 구십오평(坪)에비하야 일본인 소유면적이 칠십칠만 이천이백륙평으로 사배(四倍)가강(強)하며 디가로보면 조선인칠만륙천륙백 오십칠원에비하야 일본인의 디가는 구십칠만칠천오백삼십구원으로 십이배(十二倍)이상의 수자(數字)를보여주는데 이를이제다시 조선인 이만이천인과 일본인륙천인에 대한각각 인구(人口)의 비례로보면 일본인은매명(每名)평균팔백 이십이평

일백륙십 이원어치를소유하고 잇슴에반하야 조선인에게는 칠평(七坪) 삼원식이라는 실로 놀나지아니할수업스며 또 가옥건물(家屋建物)에 잇서서도일본인 소유가일천 륙백이십동(棟) 그건평삼만오천 오백사평임에 비하야 조선인의소유가옥은 이천사백삼십이동 이만사천구백구십구평으로 그건축물(建築物)에 대한평수(坪數)와

각각인구 (人口)의비례로보아일본인은 한사람 압헤평균다섯평식이란굉대(宏大)한집을쓰고 살어가는 반면에아ㅣ조선사람에게는 겨우평균한평(一坪)이란 오막사리밧게 눈들리지못하는사세인남포의녯주인들이얼마나외래의나ㅣ네들에게의식뎍(意識的)무의식뎍(無意識的)으로그의생활디반을빼앗기고잇는가를 가히미두어 알수잇다하겟더라(진남포)

癩病防止會幹事 『쎈너』博士來京

문둥병예방법을강구하며 이에대한주의를식키고자

미국 뉴욕시(紐育市)에잇는 라병방지회 (癩病防止會) 총간사(總幹事)『쎈너』박사는 세계에잇는 문둥병환자와 일반민중에게 주의를식히고 겸하야 문둥병예방법을 강구하기위하야 수일전에 조선으로왓다는바

남선디방 에는문둥병자가 만히잇섯던관계로 거금십오년전부터 부산(釜山) 광주(光州)대구(大邱)에 문둥병환자수용소를 건축하고 만흔환자를수용중인바 이에대하야 당국에서도 찬성하는뜻으로 환자한사람에대하야 매일십전식을 긔부하는데 동수용소에서는 이것을바더가지고 의복음식치료등에 보태여쓰는터로 현재한사람에 대하야 드는경비는 팔원가량이라는데

●금번래방 한『쎈너』박사는 더욱그내용을 충실히하기위하야 총독부의원장(總督府醫院長)지하박사(志賀博士)를 면담하고 라병예방은 세계뎍으로각국이 일치협력하야 예방에대한방침과 수용소설치에대한 계획을 상의하엿다는바 금번동박사와동반하여온『쎈너』부인(夫人)도 이사업에대하야 공헌이적지안은터로 조선을

방문한후 에는 중국(中國)비률빈(比律賓) 섬라(暹羅)인도(印度)등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일반유지의동정을 구할계획이라더라(이사업에대하야 문의할일이게신분은 남대문외(南大門外)세부란스병원에잇는 반복긔(潘福奇)박사에게 무러주기를 바란다고)

江華의染病 去益猖獗

또삼명발생

긔보=경긔도강화군량도면건평리(京畿道江華郡良道面乾坪里)에돌연히장딜부사(腸窒扶斯)가 창궐되어 윤춘태(尹春台)의집에는 권가족일곱명중에 여섯명이엽병에 걸려서 인심이매우 흉흉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환자는 계속발생하야 권긔윤춘태의집에는 권가족중 겨우한명이 남어잇든식구 라씨(羅氏)(몇)까지 마저엽병에걸렷스며 그외에도 윤씨(尹氏)(四)강련아(姜蓮兒)(三)등이 또엽병에걸려서그곳인심은 더욱 흉흉하다더라

富川蘇萊에 소도적逮捕

지난십일일경성부서대문밧교남동(京城府西大門外橋南洞)십륙번디 리유갑(李有甲)의 쇼유창고속에매어둔소(牛)두머리를훔처가지고 지난십일일부천군 소래면사천시장(富川郡蘇萊面巳川市場)에서팔랴다가 소관 주재소순사에게발각데포되야인천서에인치취묘중이라더라(인천)

巡查와訓導爭鬪

크지아니한일로

지난구일오후 구시경에 려수읍홍문리윤경래(尹慶來) 리발관에서는 보통학교 훈도와경관사이에한 활극이잇섯는데 자세한내용을 들은즉 려수공립보통학교엇던훈도가 권긔 리발소에서 리발을 하는중 려수경찰서 근무하는순사가 들어오다가 문을닷지아니 하얏슴으로 그훈도는일본말로 문을닷다드라 하얏든바 정복입은순사에게 반말을 무례하게 한다는리유로 훈도의쌤을따린바 한참동안 실내의 공긔는 일시 긴장되얏섯는데 권긔순사는 그와가티 건방진훈도는 교장에게 질문하야 버릇을가리켜노켓다고하얏다더라(려수)

蔚山城友會舘 突然搜索

사진한장을압수

지난십일 오전구시경에 울산경찰서(蔚山警察署)순사대수명이돌연 울산청우회(蔚山城友會)회관을 포위하고 모든긔구를뒤지며 수색하엿다는데 부친건의내용은 절대비밀에 붓침으로 자세히 알수업스나 수색한결과 조선로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朝鮮勞農總同盟中央執行委員)권오설(權五卨)씨로부터 울산청년련맹 상무위원조형진(曹亨珍)씨에게로온 편지한장을 가지고갓다더라(울산)

自働車에 老婆轢死

운뎐수를비난

신설된지 얼마아니되는 일본사람들의 경영하는 경동자동차부(慶東自働車部)의 운뎐수가 일전에 아화(阿火)부근에서 주행인을 치어서 중상을식힌닭으로 권긔자동차부에대한 비난이 적지안튼바 지난십일일에 또한 동자동차부의 운뎐수 김태식(金泰植)이가 대구에서손님을 태워가지고 경주로 오든중 경주군 서면 사라리 (慶州郡西面舍羅里)부근에서 동행하든 륙십여세된 로파를치어서 중상케하얏다는데 즉시 자동차에싯고 경주읍내에잇는 산구(山口)의원에게가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원악중상이된고로 즉시 절명하얏다는데 운뎐수 김태식이는 경주경찰서사법계에서엄중한심문을밧는다하며 일반은 경동자동차부에 대한비난이 자못놉다더라(경주)

五日동안에 四處怪火

원인은방화?

부천(富川)군 소사(素砂)에는 지나간 오일오후 팔시경에김봉운(金奉云)의 집에불이나서 일시소동을 일으키엇섯는데칠일오후 칠시에는 리삼남(李三男)의집에도 불이나고 팔일오후일

蔚山에強盜頻頻

경찰은눈코들사이가업다

지난칠일새벽에 서곡약방(西谷藥房)에서산양총두자루를일허버렷다 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팔일밤에 범서면천상리리모(凡西面川上里李某)의집에도도적이들어와서 만흔금권을 강탈하여갓다는데 이도적은 동리에들어오면서부터총소리를쌩쌩울리며 들어왓슴으로 동민은꼼짝도못하고 잇섯다더라

던수막집에서 울산군청(蔚山郡廳)강모 (姜某)와가티 자든데그날밤에엇던 자가들어와서 이백여원을 절취하야 갓다는데 경찰당국은 눈뜰사이업시 사방에경계망을느렷스나 아즉 범인은데포치못하엿다더라(울산)

公金을被奪

면장이출장하야 세금을바든것을

울산군 대현면장 박영복 (蔚山郡大峴面長朴榮復)씨는각동(各洞)에출장하야 디세(地稅)를징수하야가지고장생포(長生浦)엇

先生送別의눈물

청양보통학교훈도 정국진(鄭國鎭)씨가 천안광덕보통학교(天安廣德普通學校)로 뎐근되야 지난십일오전 십일시반례산행(禮山行)자동차로떠나게 되얏는데 시각을당하자마자 쌔아닌비바람은부슬부슬떠러지고 가는사람의 마음과보내는 사람의 섭섭한마음을더하게하얏는데학생일동은 정드른선생을 보내기섭섭한마음으로 권별연으로 다과회를준비하라는것까지 교장의 케지로 필경뜻을이루지 못하고 올롬한마음들이 긔지못하야눈물을서로흘이며 목을노코 울기까지하얏다더라(청양)

휘파람

▲지난 칠일에 례산(禮山)에는일본인멍텅구리가생겻다고한이야기거리가되얏다 ▲오전륙시경에각관공서에서는내친왕탄생경축을오분동안이나울렷다이종소리를들은당디소방대원일본인한아는소방긔구장을잡고례산데이구소방긔곳에가서잡근문을떼고『폼푸』를내여노코 ▲한방울몰라서 이리로저리로 왓다갓다하다가 경찰서에가서 물어보고 헛불권것을알엇다이소문을들은 일반은 그소방대원이 일본멍텅구리라고한다

假王 [二一]

白眼子 譯

궁성안에잇는 예전궁뎐 한아는사방에호수(湖水)가둘러잇서서다리로만 드러가게 되얏는데그다리는 예여올리게되얏고 궁뎐미레잇는 바위를떠내이고 방두개를 만드러밧게잇는방에는 언커던지 공작이사용하는 부하세놈이번을 드러잇고 그속방에는 임금님이 쇠사슬로 동여매인채로 게신데만일 밧게서누구가와서중성을 치게되야 그방까지 차저드러간다면 밧것에 문을직히다가밧문이 쌔여질듯하고 그중한놈이 안으로 드러가서아모말도업시 임금님을 죽이고 그시톄는 처치를 하여야겟는고로 몸속으로집어너케 되얏는데 속에잇는방에서 들창을열면 곳큰도랑이 사람한아드리갈만치되야 시톄에 무거운돌을다려가되야 그후에던지면 저절로 물속으로 드러가서 소리도업시드러가고 그둥으로 정말도 위급하게되면 그놈들도 그곳에 몸을숨겨 커편언덕으로 나아가게하야그곳에 말이항상 매여잇는고로 안젼한곳으로 도망을가게되얏고 공작은우헤서 도망하야어느곳에서 서로맛나자는 계획이 만일아모른놈이 업스면다시 공청으로 도라와서 공성을차려드렷든 사람을 쥐살듯하겟다고 약속이잇다하며 공작의 의향에는 임금님을독이한 경우라야 죽이고 될수잇는도록까지는 목숨을살려다가 러도빈씨를 본카죽인뒤에 임금님을 죽이라한다고하야요셉은이야기를자세하고하야밧치어실상대로말하엿스나 아못조록비밀을직혀공작이압사하지못하도록하여야겟다하며서만일에 공작이아는째에는 자긔는 다만속히 죽여주기만 바란다고 하엿다

그자의 이야기가 머강이러하엿스나 우리가 심문하는대로더욱 자세히 알게되얏다 그이야기는 몃사람이 총이나가지고 습격할때 방비에지나지못하고 나가원국군네를 가지고에워싸면 그권에싸어가 되지못할것인즉 그런째에는 로국왕을 잡잡히 죽이어 그중속으로 집어너코 내게는자긔부하가 급히 죽인책임이나사죄를짐할것이고 그러케 감검한리유는 마도향이란녀자에게 너무 갓가히구는고로 권당궁궐의 공작인책임상 당연히 감금하엿다하야 권당일경에서 궁성안에엇던사람한아이 갓치여잇다고는 이야기거리는 못이나ㅣ련이고 나는외면으로 보기에 공작이잘못한일이업다고고만틀려 오게되면뒤에 공작은 왕의시데를 쉬쉬히처치할 계획이엇섯다

사머좌와도련형이 가이말슴다ㅣ 듯고 눈이둥그래지며 간악한공작의 계책에놀나지 아니할수가업섯다 내가 평화스럽게공작을 방문하던지 쳐러가던지 좌우간 왕은 죽일러안즉 공작이나보다 세력이 만타면 나를잡어죽이고 자긔마음대로 할셴이엇섯다 그러나 내가공작보다 세력이만흘지라도 나는공작의죄상을 말하자면 역시 나를 내가발각식히지안코는 농치못하얏스며 내가그대로 왕이 정말되여잇스면 공작과 후일에다시 한번차홀지 은정한일이다 공작의 계획는정공할것인이오 다른것은 아니나 고볼수가잇섯다 그러고 최후로그사람과 로국룡상사이에 장애물이라고는나한사람뿐이니 나는실상 정말왕이 아니고 가짜왕이며 공작의작전계획은 순전히두리로 싸호고군긔가 아닌것을나는쌔닷게되얏다 내가요한다러 로국왕이 그런줄을아느냐 무럿더니 「비소인과 소인동생이그고룡을못는데 임금님께옵서 그것은엇지하야 못느냐무른시긔가에 면하게옵서 하늘에 올라가실째 가실곳이라는말슴을 드렷다고 아뢰엿습니다 셩경에말하기를 사람이련당에오르라면 야곱의 사다리를탄다는데 그수룡은 신식으로만든야곱의 사다리라는말을 듯조왓슴으로 그대로아뢰엿습니다」 하고며다를 하면서 로국왕이며 닷한 데격이지마는 그소리를듯고는 얼굴이 해쑥하여지더라고 하며 궁성안에서는 밤에다리를끼엇고 장출잡수가업는것이 공작의 부하여섯놈이 엇지도흉악한지 사람의목숨만키를 파리죽이듯하는 련성을가진 하속배가 송구하여 지내일수가업다고 하엿다 말을그만하고 그침으로 도련형이다려내여보내라부탁하고다시 그자를바라보며 「누구가뭇거든 궁성에엇던사람한아이 갓치여잇다고는 하여도 관계업스나 로국왕이라하면 너는 네목숨을 부지치못하리라 이집안에서는 그런소리를 못한다」 보며 「일이쉬웁게 풀리지아니하겟소」하엿더니 내적은반백이된 리를 흔들며 「래일이에게지략도 빈씨가노국왕으로 게실모양이올시다」 「이러나 생기지아니하면 놓지 구하기가 어려울것이오」하엿다